

이커머스, 수익성 전망 '맑음'... IPO 1호 재도전 나서나

컬리, 100억 성장한 EBITDA 흑자 물류센터 생산증대로 비용 크게 절감
오아시스, 창사 이래 분기 최고액
SSG닷컴, 수익성 선방... 적자 개선

최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에서 기업공개(IPO) 1호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을 연기했던 컬리와 오아시스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IPO 재도전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는 이들 업체의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

컬리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월간 영업전상각이익(EBITDA) 흑자를 낸 데 이어 올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약 100억원 성장한 EBITDA 흑자를 기록했다. EBITDA는 이자비용과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빼기 전의 영업이익을 말하며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력을 추측할 수 있는 지표다. EBITDA 흑자는 기업이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컬리는 이번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직접물류비를 꼽았다. 지난해 새로 오픈한 창원과 평택 물류센터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물류 안정화를 이루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수수료 기반의 3P(위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 등 주요 신사업의 연간 거래액과 매출도 흑자 전환에 이바지했다.

특히 이번 흑자 달성이 일시적 효과



가 아닌 것으로 분석돼 연내 분기 영업이익의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컬리는 흑자 행진 여부를 보면서 상장에 다시 나설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컬리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이 좋지 않아서 상장을 연기했다"면서 "이제 월 EBITDA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현금이 쌓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장 환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시 상황이 좋지 못해 상장을 철회했던 오아시스는 작년 3분기 약 5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 이래 역대 분기 기준 최고액을 갈아치웠다. 4분기 흑자가 유력해 사실상 12년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커머스 업체인 SSG닷컴은 2021년 10월 미래에셋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에 IPO 주관사로 선정하며 2022년 상반기 상장 추진에 나섰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증시가 얼어붙으면서 IPO 추진을 연기했다.

오프라인유통강자인 신세계그룹이 론칭한 SSG닷컴의 경우 연간으로 놓고 보면 수익성 면에서 선방했다. 지난해 매출은 1조6784억원으로, 지난해 2022년 매출보다 3% 줄었으나 지난해 적자 폭을 전년 대비 7% 개선한 1030억 원을 기록했다. 총거래액(GMV) 역시 전년 대비 8% 성장했다.

SSG닷컴은 일일배송서비스인 측배송을 확장하고 있으며, 차별화 상품 개발, 산지 직송 상품 강화 등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SSG닷컴은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의 개선 여부를 살펴 가면서 주관사와 상장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경준 혁신IB 자산운용 대표는 "아직 유통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다 유통사에 대한 거래소의 회의적인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커머스업체가 상장시장에 나온다면 흥행은 되겠지만 승인이 쉽지 않아 보여 4분기는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총 99건 적발

무자본 M&A·시세조종 등 유형 증가

지난해 증시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부정거래 31건(31.3%)과 시세조종 23건(23.2%) 등으로 총 99건이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9건) 증가했고,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 대비 27.8%

(5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내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코스피에서는 32건(31.3%), 파생상품이 1건(1.0%)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9%)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다소 높았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경우,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는 지능적인 신유형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한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

코스콤-유안타증권, ST플랫폼 구축 '맞손'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등 협력

국내 토큰증권(ST) 공동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코스콤과 유안타증권이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코스콤은 지난 12일 본사에서 유안타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등 기술 부문 협의와 토큰증권 관련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계획 중인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으로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 개발과 함께 우수한 기초자산 발굴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코스콤이 토큰증권 사업 관련 증권사와 맺은 네 번째 협약으로,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키움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올해 대신증권, IBK증권과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황선정 코스콤 전무이사는 "금융사



12일 코스콤 본사에서 황선정 코스콤 전무이사(오른쪽)가 신남석 유안타증권 Retail사업 부문 대표와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코스콤

가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등 고려 사항이 많은 가운데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며 최근 많은 이용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는 유안타증권이 당사의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파트너가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양사의 협력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中 직구플랫폼 성장세... 네카오 '희비교차'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3.38% ↓ 목표주가도 하향
카카오, 5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주춤 나란히 앞뒤... 경영진 교체 예정

호실적에도 주가가 뒷걸음질을 치던 '네이버·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중국산 직구 플랫폼들의 성장에 네이버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실적에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카카오는 경영채신·주주친화 정책 전망에 따라 기대감이 오르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들어서 네이버의 주가는 3.38% 하락한 반면, 카카오는 2.43% 상승하면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네카오(네이버·카카오)는 소외되면서 주가 반토막의 길을 유지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의 저조한 반응과는 다르게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액 9조6706억원, 영업이익 1조4888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에도 2.74% 떨어지는 등 역행했다. 알리, 테무 등 중국산 직구 플랫폼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네

이버 커머스 사업의 성장 둔화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26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 위기의식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직구금액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의 거래액을 누르고, 지난해 4분기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61% 성장하는 기동력을 보였다. 정호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이버가 커머스에서 도박보장술루션, 브랜드패키지솔루션 등을 출시하며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는 최근 6거래일 중 5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다만 13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2.15% 하락한 5만46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의 인건비·마케팅 통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익 성장 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성장률 전망치를 108%로 추

정하기도 했다.

이호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상장 법인 외 그룹사 비용 통제가 시작됐는데, 올해 추가 업사이드는 상장사 비용 슬림화가 결정할 것"이라며 "AI 측면에서도 범용성보다는 B2B(기업간 거래) 세분화된 모델에서 사업 성과가 빠르게 도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는 중국 이커머스 침략에서도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커머스 거래액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선물화기의 경우 저가의 가성비 높은 상품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기에 가격 차이에 따른 유제 이탈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오는 26일과 28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호실적에도 주가 반응이 미미한 네이버의 경우, 2명의 금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정신아 신임 대표 선임 중점으로 사내·사외이사 5인을 신규 선임해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 신임 대표의 선임과 함께 AI 서비스 신사업 확대 및 조직 개편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자산운용, '온국민 TDF' 설정액 1兆 돌파

단일 시리즈에서도 성과

KB자산운용은 대표 타깃데이트펀드(TDF)인 'KB 온국민 TDF' 시리즈가 설정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B 온국민 TDF'는 2017년 출시된 KB자산운용의 첫 TDF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 중이던 김영성 대표를 2016년 영입한 것도 TDF 개발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5월 'KB 다이나믹TDF' 시리즈와 함께 수탁도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KB 온국민 TDF' 단일 시리즈 설정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옵션제도) 본격 시행 이후 'KB 온국민 TDF'로의 자금 유입은 뚜렷한 추세다. 작년 한 해에만 1092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덕분이다. 디폴트옵션 클래스 기준 'KB 온국민 TDF' 시리즈 5개 빈티지(2035~2055)의 1년 수익률은 모두 17% 이상(17.39~22.56%)을 달성했다.

KB자산운용은 저보수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길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KB 온국민 TDF', 적극적 시장 대응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KB 다이나믹 TDF' 등 두 가지 상품 시리즈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